43~45 프로젝트Now3 2005.3.16 1:9 PM 페이지43 001 Acrobat™ PDFWriter

"뚝섬을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잿빛 도시의 녹색화 구현"

- 2,500억원 투입해 5개 테마 공간으로 조성, 건설과 환경의 상생 모델 제시 -

도시숲은 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도시 숲은 미세한 기후를 조절하고, 오염 물질과 먼지를 줄여주며, 녹색 풍경을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준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노력은 다음 세대에게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뚝섬을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이에 비해 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 서울은 흔히 잿빛 도시 또는 회색 도시로 불린다.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로 비유된다. 실제로 서울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녹지 수준에서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 1인당 최소 생활 녹지 면적인 9㎡(3평)에 크게 못 미치는 4.52㎡(1.5평)에 그치고 있다. 생활녹지란 도시 내부에서 접근이용이하면서 이용이 가능한 녹지를 말한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녹지 면적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가 차지하고 있어 실제 도심 속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푸르름의 혜택'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올 5월 서울에도 영국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근사한 숲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대 35만평에 들어설 뚝섬' 서울숲'이 5월에 개장되면 아름드리 나무가 공원을 둘러싸고 고라니와 사슴이 뛰노는 도심 속 대자연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그동안 녹지공간이 적어 삭막했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시민들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43~45 프로젝트Now3 2005.3.16 1:9 PM 페이지44 001 Acrobat™ PDF 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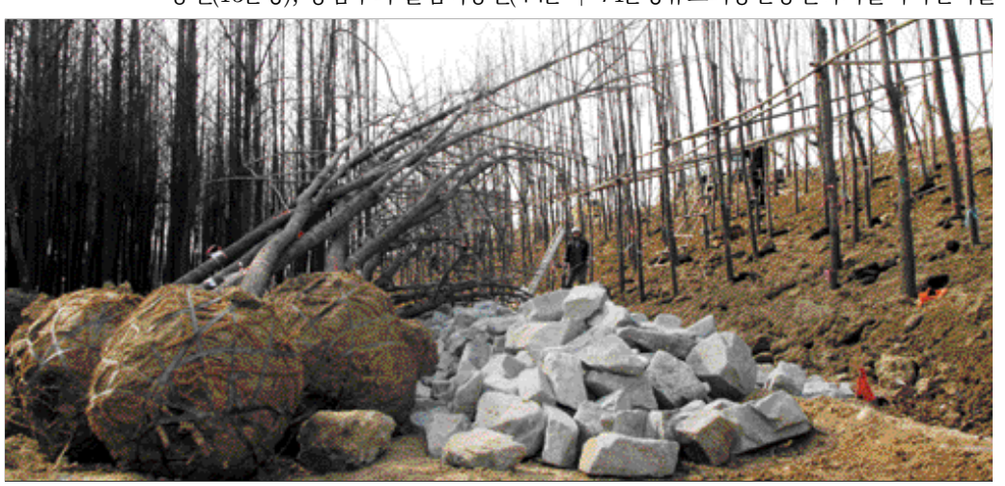
'거대한허파공간'을갖게된다. 일부골프장입장시민만이이용할수있었던곳이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생태 공간으로 바뀌게되는것이다.

숲으로 조성될 부지에는 공원 전체에 걸쳐지름 30 40cm에높이 20m의나무 104종 42만 1,000그루를옮겨심는다. 대표적인 나무종은참나무, 서어나무, 산벚나무등이며, 한국고유종이대부분을차지한다. 특히, 숲과공원이만나는도로변에는줄기가곧고 굵으며높이자라는교목류를집중적으로심어공장을가리고소음도줄이게된다.

생태 숲 조성 위해 3조원 개발 이익 포기

뚝섬 일대의 35만평에 달하는 서울숲 부지는 서울시의 도심부 가까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규모 미개발지이다. 그래서이곳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다목적 수퍼돔구장, 서울시청사후보지, 국제첨단업무단지, 국제문화관광타운등의대상부지로검토되었다. 특히, 개발사업을추진할경우3조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눈앞의 개발 이익보다는 서울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 서남부의 보라매공원(13만평), 동남부의 올림픽공원(44만평), 서북부의 월드컵공원(81만평)에 버금가는 녹지 공간을 마련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서울의중앙에 71만평규모의용산공원까지들어서면서울의각지역에대규모공원이들어서게된다. 잿빛도시의녹색화가완성되는셈이다.



미니인터뷰 조인원 현장소장(현대건설)

"서울의 자연 생태가 회복되는 전진 기지로 조성할 터"

"뚝섬에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나 잔디밭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개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나 시각적·기능적으로는 아름답고 편리하되관리 비용은 가장적게 드는공원을만들고싶습니다." 조인원현대건설 현장소장은 서울숲을통해서 지역 주민과서울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아름답고쾌적한공원을만들겠다고말한다. 우리나라건설산업의기수역할을 해오고 있는회사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맘껏 발휘해 서울의 자연 생태가 회복되는전진기지를만들겠다는것이다.

그는서울숲이청계천과연결된중랑천과한강이합류하는지점에위치해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북한산과 종묘, 중랑천, 한강이 연계되는도심녹지축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곳 뚝섬에 울창한 도심 숲이 조성되면 20년 또는 30년 뒤 우리에게돌아올경제적이익이현재개발이익으로거론되는3조원과비교할수없이클것이라고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공사 기간이 13개월인 데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미보상부지공사에대한 부분적인 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더욱이 35만평의대규모부지이다보니주변유관공사와도많은저촉이있는실정이다. 이에 대해조인원소장은 "보상문제가지체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겨울 동안 나무 확보에 힘쓴 만큼 남은 기간에 모든 여력을 집중하면 5월 개장에 문제는 없다"고말했다.

조인원 소장은지난 2월 1일 이곳현장에 부임하였다. 더욱이그는토목엔지니어다. 대규모 조경 공사가 이루어지는현장과는얼핏 맞지않아보인다. 하지만얘기를들어보면 수긍이간다. "서울숲조성 현장이 조경공사가주를이루는것은맞지만토목과건축물량역시상당합니다. 그래서제가일종의구원투수로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을 여러 차례 맡아 토목과 건축, 그리고 조경이 함께하는 현장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3P(preengineering, prescheduling, preparation)를강조하고 있는데 저부터이를잘지켜나가면성공적인생태프로젝트를만들수있을것이라확신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5개의 테마 공간

서울숲은 자연과 함께 숨쉬는 생명의 숲, 시민이함께만드는참여의숲, 누구나함께 즐기는기쁨의숲이라는대전제아래5개의 테마 공간으로 나누어 꾸며진다. 서울숲의 얼굴이 되는 제1테마는 '뚝섬 문화예술공원'으로, 광장·야외무대·아틀리에·축구장·인공 연못 등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뚝섬문화예술공원은 현재 보상이 완결되지 못한 일부 구간을제외하고는공사가거의완료되었다.

야생동물이서식할 수있도록자연그대로의 숲을 재현한 '뚝섬 생태숲'은 두 번째 테마이자 서울숲의 핵심. 서울숲 전체에서

43~45 프로젝트Now3 2005.3.16 1:9 PM 페이지45 001 Acrobat™ PDFWriter

도가장울창한이곳에는꽃사슴, 고라니, 노루등이방사되며, 사람의출입은제한된다. 대신 시민들은 생태숲 위로 놓인 보행 다리를걸으며이들동물을내려다볼수있다. 길이 472m의 보행 다리는 한강 선착장과 연결된다.

현 유수지 자리에 생기는 습지생태원은 제3테마 공간으로, 조류관찰대 · 환경놀이터 · 정수 식물원 등 친환경적인 체험 학습 공간이다. 제4테마는 ‘ 자연체험학습원 ’으로, 기존의 정수장 시설물의 골조를 재활용해 갤러리정원 · 나비온실 등 식물 관상 및 나비와곤충생태를관람할수있는체험위주의 공간이다. 제5테마는 ‘ 한강수변공원 ’으로 선착장 · 자전거 도로 등이 설치돼 한강변의독특한친수공간으로조성된다.

서울숲은자연과어우러지는생태공간인 만큼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기존의 방식과는크게다르다. 우선, 서울숲은불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생태적인 개념이 공원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자연에너지활용방안으로일부건물에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고, 생태숲 지역에는 태양열 조명이 도입된다. 또한, 우수를 매설관을 사용하여 배수하지 않고 전체를 도랑 형태의 개거 수로로 구성해 빗물이 땅 속으로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였다. 일부 빗물을 관수용으로 사용하기위해우수저류조도설치된다.

뚝섬문화예술공원내에조성된인공연못.

국내의 대표 건설사들이 시공 맡아

‘ 서울의 센트럴파크 ’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약 2,500여원. 이 중 1,700여 억원이 민간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며, 나무를 사서 심는 데만도 300여 억원이든다. 조경 공사로만보면국내에서사상최대규모이다. 더욱이 조경 공사가 주를 이루는 현장이지만 토목 및 건축 공사 물량 역시 상당해 가히 ‘ 건설공종의전시장 ’이라할만하다.

시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업체 2개 사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제2테마 공간인 생태숲(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적격심사입찰방식을통해서울시로부터 365억원에이 공사를수주하였다. 공사는호성건설과공동으로 이행하고있는데 현대건설의 지분이 95%에 달한다. 현대건설의 공사 면적은 13만평 정도이며, 삼성물산은4만 7,000평 규모의생태 공원을조성하고있다. 한편, 이번서울숲조성공사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뚝도 정수장 일부 구간은제외되었는데향후서울시는이들부지도생태공간으로조성할계획이다.

건설과 환경의 상생 단면 보여줘

지난해4월초시작된서울숲조성공사는 올 2월 말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숲광장과야외무대등시민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과야생동물이서식

서울숲은 전체 지역에 도랑 형태의 개거 수로를 통해 빗물이흐르도록하고있다.

할수있는생태숲으로조성하는사업을위해한겨울의강추위에도아랑곳하지않고건설기계의 굉음이 울리고 숲 단장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의손길이분주하다. 원주민과의 토지 보상 협의로 지체되었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여 당초 목표인5월개장을 맞추자면 일각의지체도허락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제 뚝섬은 과거의 숲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개발시대를거치면서경마장이니골프장이니공장이니 인간의손때를많이탔던 뚝섬이임금님의 사냥터였고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 피서지였던 자연 상태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설과 환경의 상생을 본다. 뚝섬 서울숲 현장은 최고의 건설기술과 관리 능력이 융해되어 자연이 숨쉬는 녹색 도시를 구현해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CJ

글: 이형우 사진: 최영익